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프라짜오 락 쿤 พระเจ้ารักคุณ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태국어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캄보디아의 정지웅/은영 선교사입니다. 이번 태국 단기선교 7.29-8.2 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기쁨의 소식을 모든 성도님께 나눠드립니다.

담장을 넘어 Over a Wall | 장 47:42

이번 태국선교의 가장 큰 의미는 캄보디아 청년들의 첫 해외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작년 8 월 깜뽕츠낭 선교 후, 1 년뒤인 2016 년 7 월에는 태국으로 첫 해외선교를 나가자고 한 것이 시작이 되어 동역서신 no.23, 올 해 1 월



교회 안에 선교은행 JEJA Mission Bank 를 개설하고, 1 인당 선교비 150 불을 6 개월에 나눠 적금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분증을 갱신하고 여권을 만들고, 준비 모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외국으로 외국인과 나간다는 것을 걱정한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고, 직장 휴가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렇게하여 총 6 명의 청년들이 이번 태국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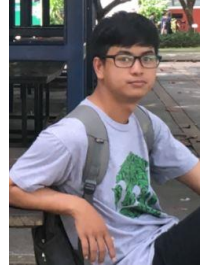
7 월 29 일 프놈펜에서 8 시간 버스로 국경지역인 뽀이뻬 Poi Pet 에 도착, 버스에서 내려 출국 심사 후, 캄보디아의 마지막 관문을 지나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걸어서 담장을 넘는 Over a Wall 장 47:42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롭고 위대한 또 하나의 시작이리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꿈 꾸는 시간 Dreaming time

태국 방콕은 매우 국제적이고 큰, 상업이 발달된, 성경의 고린도와 비슷한 도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동남아의 허브도시로, 많은 선교사, 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디서든 마주치게 됩니다. 저희는 토요일과 주일 두 번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어와 태국어로 진행되는 예배였습니다. 서양인도 태국인들도 똑같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간 저희 청년들에게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사와 서양인만의 것이 아니요, 비슷한 문화, 종교권인 태국인들도 같은 모양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작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태국사람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캄보디아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진가 True Value Peter

피터는 초등학교까지 태국에서 자란 캄보디아 청년으로 이번 선교여행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4 박 5 일의 일정을 짜고, 기본 언어 훈련, 그리고 선교 기간 중 통역과 안내를 잘 감당해주었습니다. 진가를 발휘하는 모습, 참 멋졌습니다.



캠퍼스 전도, 그리고 돌파 break through



매일 캠퍼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날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생각치 못했던 모습을 팀원들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위축이었습니다. 선교사인 제게는 태국이 선교지지만, 캄보디아 청년들에게는 선진국으로 일종의 문화적 경제적 열등감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혹 어떠한 실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당국에 보고하고 전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어나 낯설음과는 분명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캠퍼스를 거닐며 기도하자 했습니다. 정문, 도서관, 본관, 단과대학, 학생회관 등을 지도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생명이고 진리요 부요함이고 능력이니, 그 권위로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어를 쓰는 이가 아니면, 피터의 통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된 두려운 마음을 점차 몰아냈습니다.

가꾸시는 손길 Gardening Hand

매일 아침에는 경건의 시간을, 그리고 잠자리 들기전에는 그날의 보고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꾸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안전을 느끼고, 기쁨도 연약함도 나눠짐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두 형제의 나눔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니레악 Monnyreak(사진 오른쪽)입니다. 자기보다 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빛이 무섭게 여겨졌으나,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했고 복음을 전했다 나눴습니다.

또 한 형제는 우덤 Oudom(사진 중앙)입니다. 그는 자세히 나누진 않았지만, 요즘 그리고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부르심 calling 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는 말씀창 37:11 이 생각났습니다. 각자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이번 단기선교 기간동안 중국, 필리핀 선교사인 팀과 플러리다 Tim, Florida 부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두 부부는 미국 시카고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이후 뉴욕에서 직장생활 중 부르심을 좇아 하와이를 거쳐 태국으로 오게 된 귀한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써 가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일입니다. 처음 만난 저희를 환대해주었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8 월 2 일 화요일, 4 박 5 일의 짧은 일정을 마치며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떠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안에서 피곤해서 자는 팀원들의 모습이 하나 하나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에 마치 '너는 이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선교사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할 일이 적어지는 것,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사역의 아름다운 순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래 달려 다시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동냥을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냥 지나쳤는데 다엔 Diane 은 그러지 못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단기선교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저희는 계속 대학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데 힘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정은영 선교사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온유는 다음주에 중학생 6학년 이 됩니다. 늘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사랑을 힘입어 이곳 캄보디아에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분들의 삶과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선교사 부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2. 단기선교 6 명의 청년들을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며,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3. 온유, 주연이가 건강하고 총명히 자라며, 새학년 적응과 기독교의 매달 학비를 위하여

2016 년 8 월 5 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연 올림



~ Episode ~



살빠콘 대학 Silpakorn University 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다가 정말 큰 나무 Fig tree 를 보았습니다. 그 아래 사람이 쉬듯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쉬게하는 큰 나무와 같기를 바라봅니다.



태국 왕궁 앞 공원입니다. '깨어라 Wake Up, 뛰라 Jump, 뻗으라 Reach'



태국 입국심사장으로 가는 길 안내판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왔습니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 가시오'



받은 전도지를 보는 한 학생의 모습 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하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THANKS

방콕에 있는 베트남 난민센터에 옷을 기증하였습니다. 다리가 되어주신 신수환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단기선교 소식을 듣고 찾아와 팀원 식사를 섬겨주신 김성은 집사님(정은영선교사 대학선배)께 감사드립니다.

- The End -